

# 與 대선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워크... 매직넘버 '55만명'

1차 슈퍼워크서만 75만 여명 투표  
본 선거 직행 '매직넘버' 주인공도  
충청지역서 순회경선 본격 스타트  
1차 결과 호남권 경선에 영향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 승부처는 1차 슈퍼워크가 될 전망이다. 1차 슈퍼워크에서 공개할 64만여명 규모의 국민·일반 당원 투표 결과로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 투표 없이 본 선거로 갈 수 있는 '매직넘버'를 확보할 후보도 1차 슈퍼워크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4~5일 충청(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첫 순회경선을 치렀다. 이어 대구·경북(11일)과 강원(12일)에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워크 결과도 발표한다. 1차 슈퍼워크에서는 충청권,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10만여명)과 1차 국민선거인단(64만여명)을 더한 총 75만여명에 달하는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슈퍼워크에서 확인될 75만여명의 선택은 추석 명절 이후 펼쳐질 호남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명,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권 순회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밴드 웨건(다수나 유행을 따라 선택하는 현상) 효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권에서 60.2% 득표로 대세론 입증 후 경선까지 기세를 이어간 바 있다.

특히 광주·전남(25일), 전북(26일) 등 호남권 경선에는 가장 많은 20여만명의

대의원·권리당원 표가 걸려 있어 이번 경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에 1차 슈퍼워크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후보가 밴드 웨건 효과에 힘입어 최종 대선 본선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꼽힌다. 4일 충청권 지역 순회경선에서 50%대 과반 득표를 하면서다. 대전·충남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지사는 54.81%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27.41%)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따돌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대세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도 4일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하겠다.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충남 순회경선 결과에 대해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 6만명의 판단이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의를 다졌다. 이낙연 필연캠프 김영웅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진정한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승리를 향한 이낙연 후보의 명승부 역시 기적을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매직넘버'(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득표수)는 55만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재 3차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약 190만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당초 250만명을 내다댔던 전망치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1~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대의원·권리당원까지 186만 명이 확보된 것과 비교하면 3차 모집에서는 불과 4만~5만 명이 추가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총 220만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전·충남 순회경선 투표율이 48.4%로 지난 2017년 경선 투표율(76.6%)보다 낮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선 투표율은 5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경선에서 50%가 투표하면 투표인원(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이 확보되면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국민의힘 '역선택 갈등'... 대선주자간담회 곳곳 빈자리

행사장에 12명 중 8명만 참석  
역선택 조항 반대 입장이 불참  
유승민 "尹 추대 서약이나" 비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일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5일 오후 예정됐던 공정선거 서약식 및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해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제2차전 사령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만 참석했다.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홍준표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앞서 이들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냈다.

유 전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선룰도 모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일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5일 오후 예정됐던 공정선거 서약식 및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해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는데 뭘 서약하라는 건가, 윤석열 후보 추대를 서약하라는 건가"라며 "위기에 몰린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올인한 정홍원 위원장은 부끄러움도 모르는가"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총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공천을 했고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랬다. 더구나 대선에선 단 한 번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5일 역선택 방지 조항 폐지 주장을 한 대선주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당의 공식행사를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자"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박진 의원, 장기표 원장, 장성민 이사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철회 의사를 드러냈다. 총 12명의 후보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황교안 전 대표, "선관위 입장에 따르겠다"는 최 전 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제외하면 8명이 역선택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인 것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면 후보들이 다 따를 것"이라며 "선거라는 것은 룰 가지고 다름 있기 마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선관위도 이날 오후께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회의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선관위 회의 당시 반대 6표, 찬성 0표, 중재안 6표로 갈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후보자선출 규정을 담은 당규 제2장 12조 3항 '위원회 회의 당시 표결이 있을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발도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원희룡, 혁신성장 2호 공약  
"100조 '미래국부펀드' 조성"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사진)가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며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라고 진단했다.

원 전 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 10대 산업 중 수출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최근 10년간 고용유발계수가 수출 10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첫째로 "민관합동 '미래국부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전문금융투자자와 함께 5개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씩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이어 원 전 지사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정홍원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사의 번복'

사의 표명했으나 이준석 만류  
당 지도부 전폭적 지지로 철회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사진) 5일 대선후보 간담회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곧 번복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성민 후보가 "여기 오면서 선관위원장 사임 속보를 봤다"며 "오보인가"라고 묻자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다"고 대답했다.

정홍원 위원장 체제의 선관위는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대선주자의 비판에 직면했다. 또, 4일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 4인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공정선거 서약식과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정 선관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선관위 운영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서약식에) 불참하는 행위에 매

우 우려투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리 부탁드려 죄송하고, 지도부가 지지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후보님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마추치는 손바닥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좋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면 선관위가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